

교육철학적으로 본 간호교육

李 環 澗

〈서울대보건대학원부교수, 철학박사〉

주의적 실험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I. 서 론

사회적 행위나 개인적 행위나간에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목적에 반드시 결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100년 대제와 관련이 밀접한 교육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뚜렷한 신념의 바탕에서 설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들을 체계적으로 취급하여, 어떤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철학이라 하겠읍니다. 다시말해서 교육철학은 교육결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체계적 신념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든 철학적 근본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철학적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도달에 필수적인 그 수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간호교육이 어떠한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철학적 개념이 우리 교육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테두리 내에서 교육의 사회적, 교육과 경제, 교육과 목적, 교육과정, 및 학습과 교수등에 대한 것을 실용

II. 본 론

1. 학교와 사회

교육이라 함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회적 과정은 교육 철학의 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지역사회 또는 국가사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회적 과정이 생존과 단결을 위한 기본적인 의사 소통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극도로 발달된 개인주의 개념의 대가로 군중속의 고독이라든가 사회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간에도, 학교 환경에서의 사회적 유대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각기 정확히 구별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호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교사와 학생 양자가 존재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뜻이며, 어떤 개체가 완전한 독립성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전체중의 일부분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른 동료 인간에 대한 관계가 상호 의존성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분야인 간호교육도 다른 보건의 전문직 교육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전문 분야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자들이 인간의 사회성을 습관으로 또는 본능으로 고려한다는 여부가 대단히 의미있는 교육적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사회적 본능으로 표현되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항상 사회 관계라는 복잡한 거미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라는 것이 사회의 건강필요의 포괄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제공되어야 하며, 따라서 간호 결과가 지역사회 인구의 전체적 건강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소비자와 제공자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성립한다면, 인간의 사회성을 전문직업의 사회성에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 본연의 개성은 한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 즉 타인들의 인간성 종류에 따라 확실히 질 것입니다. 자아와 비자아, 또는 자신과 타인이라는 개념은 교육적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호학생 역시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를 통해서 또는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할 것이며, 나중에는 역할 모형으로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식적인 교육과정보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전체가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 물리적 환경 또는 micro와 macro환경에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관대해야 하며 따라서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필요한 적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의 기능과 관련하여 간호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의 기능은 문화적 유산의 전승에서 얻은 부분을 유지하는 보수적인 도구로서만 생각된다면 오늘날과 같이 항시적인 변화속에 있는 사회에서는 큰 치명적 기능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지식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식 전승을 위한 교육과정을 통한 간호교육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건강 필요에서 초점이 떨어진 형태의 교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간호교육의 기능은 어느정도 표준적 또는 규범적 기능을 하여 복잡으로부터 단순으로, 평형된 양적면을 고려하여 우리 간호방면에 가장 알맞는 가치의 대표적인 것을 추려서 가르쳐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상기 할 것은 학교라는 곳이 어떤 잔여물을 보존하고 그대로 전승하는 기능만을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오히려 하는 것입니다. 간호에 대한 새로운 사상의 본산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간호 사업을 위해서 계속 제전 하는데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기능이 주요변화를 시동하는데 개입하기 때문이며, 이 주요 변화라 하는 것은 간호에 있어서는 간호의 규범, 또는 간호의 준거 체계등 간호의 이론이나 근본지향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간호학문과 간호의 진전을 위해서 책임과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이 역시 간호교육기관의 기능의 일부라 하겠습니다. 간호교육기관은 간호의 사회적 실험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한 자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급변적 과정에 있어서는 파도기를 두어서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정시키는 것이 또한 우리 교육의 기능이겠지요.

우리가 한가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오래된 것에서 부터 새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새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흰 것을 모두 버리는 식의 간호교육이 진행된 후 그 새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그 공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겠는지요?

다음은 사회성에 상대적인 인간의 개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개인입니다. 개인성이라 하면 인간본성에 있어서의 차이와 한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나 한계는 필연적으로 특수한 태도와 기호로서 결과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 때문에 흑백이 명료하고 중립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임

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할때, 학교에서 개개 학생을 다룰 때는 학생의 진전을 위해서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과 개인성을 깊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치되는 귀결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교육 방향은 우리 사회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 경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개념적 이익을 위해서 경주되어야 하는지의 「있수」에 부더치게 됩니다. 인간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생산성 있는 인도주의적 직업주의 (humanism-vocationalism)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호학생들의 사회성과 개인성을 일치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2. 경제와 간호교육

전반적 교육이 그러했듯이 우리 간호교육자들도 교육을 경제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들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열쇠는 각자의 교육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때 필요한 정도의 국민 경제상태가 평균화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 대학에서의 간호교육 기회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잠정 간호학생들이 살고있는 사회의 일반적 경제 수준에 적당하지 않으면 기회 이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경제 상태가 교육관념 (idealogy) 아닌 교육 실제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교육관념이 같은 민주주의 교육철학에 기반을 둔 교육제도 일지라도 농촌 사회와 고도의 산업화된 도시사회에서의 교육 실체는 전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호교육 실제에 있어서도 지방과 도시에서의 간호교육 시설과 수준의 차이는 도시 집중화에서 온 부산물로만 해석하기에는 보다 깊숙한 경제적 요인이 다각적인 면에서 얽혀 있음을 부정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혼돈된 관계에서 간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역사적으로 머리를 쓰는 직업, 즉 정신노동을 높이 가치

평가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은 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제도 때문에 간호교육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높이 인정 되어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점차적으로 중요시 되고 경제나 교육에 있어서의 가치기준에 도전이 오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간호교육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문화적 또는 역사적으로 볼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교육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 기능이 전문 분화됨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도 분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산업장 기계화가 복잡화됨에 따라 노동력도 기계의 부분에 맞추어 분화되었으며 간호산업장 역시 병원기구와 의학 분야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 간호가 전문 분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문분야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한 기능은 인간이 기계나 제도를 움직이는 것이지, 반대로 기계나 제도의 노역이 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의학이나 간호교육 방법이 극도로 발달한 미국의 수많은 학교에서는 그 분야의 교수 없이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이라고 해서 전자 계산기로 학습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으나, 이 전자 계산기 자체를 인간이 발명 했고 아주 실력있는 교수에 의해서 모든 학습보도자료가 그 기계 속에 투입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학생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과제를 앞에 대했을때, 올바른 조망에서 비판적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간호교육 자체도 개인으로서의 발달과 잠재능력 개발을 중점으로서 전문교육으로 지향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적 관심과 교육적 관심이 혼돈 되어서 학교로 침범한다면 학문 자유의 추구는 영리제도로써의 위험이 따를 것이며 이것은 자유스러운 지능 채택에 큰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간호 교육 목적

간호 교육에 관련된 교육 목적은 교육 진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교육 목적이라 함은 개인의 추구(탐색)로서 목적의 실질적 형성은 교육의 진행과 더불어 內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일부는 일개인의 목적을 결정하도록 학습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최후 목적으로서 어느것이 더 가치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학당시의 간호학생은 학년이 진행될수록 직업목적이나 인생목적이 뚜렷한 윤곽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물론 간호교육 자체로서의 교육목적이 선정되어 있어야 할 것임니다만, 간호교육 목적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강태 향상(출세)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통적 핵심을 이루고 있는 넓은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교수나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변화되는 요구와 요구 충족 수단에 관한 관계를 평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교육 목적이 주위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재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호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도 목적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성이 내포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목적이 교육 진행에 방향제시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제적 차원이 개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을 時制的 차원에서 볼때 현재 생활 참여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준비로서의 현명한 혼합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의 연속체들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사이 아이와 어른의 사이에는 확실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현재로부터 보이지 않게 미래로 성장해야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아이와 성인 역시 발달의 연속체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에서 충실하고 잘 성장 한다면 그것이 미래에의 성장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교육 역시 교육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간호학교는 생애를 목적하여야 하며 바로 지금의 학생 생애를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택한 교육 목적은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지능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개발된, 두루 잘 다듬어진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균형잡

힌 것이라야 될 것입니다. 물론 채택한 교육 목적의 우선 순위는 직업 목적이나 지능적 또는 신체적 탁월(우수)등 중간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하간 교유의 교육목적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보다 안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겠읍니다. 우발성과 역동성의 혼합으로 구성된 이 세상에서의 교육목적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전체와 같이 변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목적이란 어느 정도 임시성이 또는 융통성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원 목적을 조정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교육목적은 지적 함양 또는 사회적 이상화를 통한 자기 실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계속적인 누적과정이며, 한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는 것이 짝읍니다. 선량하고 올바른 습관은 무한한 확대로 이끌 것이며, 암적 성장은 틀림없이 사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간호교육의 궁극적 목적 역시 일반적인 교육 목적과 다를 것이 없다고 믿읍니다.

목적 진술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의 관계를 철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과학적 목적은 “당연성 또는 ……하지 않으면 안된다”에 도달하는 수단이며 이 “당연성”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전이라 함은 목표가 있음을 뜻합니다. 목적은 어떤 특정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그 진전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보다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방향이라 한다면, 목적은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학문의 자유라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이 목적달성 수단을 결정하는데 있어 비교적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호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 결정은 간호 교수들의 특전이며, 학문의 자유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되겠읍니다.

4.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마치 경주에 있어 목표도달을 위해서 뛰어가는 코스인 주로(走路)이기 때문에 교육목적이나 가치의 확대된 형태라고 하겠읍니다. 전통적 교육 과정은 二元的인 것으로서 학습자를 특정성으로 보고 교육과정 자체를 일반

성 또는 전반성으로 보아 왔습니다. 즉 교육과정은 사회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학습자를 위한 강제 기준적용의 은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자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맞추어가는 대신 학생을 교육과정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교육과정으로서는 학습자의 특성에 치중해서 생겨난 교육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경험테두리 안에서 생각 되어야 하며, 학생의 경험내용과 인증 경험내용과의 연결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 관점에서의 커리큘럼, 통계학, 간호역사등의 분류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유용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각기 새로운 과목은 새로운 생애 관심을 대표하기 때문이나, 가끔 전후 관련없이 그냥 첨가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내려오든 커리큘럼은 최종적이고 불변성이 있는 것 처럼 공부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요구나 관심 또는 견해가 무시된 채 규정으로서 기능을 하며 이것은 수세기 동안 권위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교수의 권위로서 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보다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커리큘럼은 한 인간으로서의 학생에 대한 관심을 중점으로 하여 보편적인 정보를 다루는 것과 동시에 정서적 태도와 도덕적 이상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생애 장면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어야 하며 경험 중심이어야 하겠읍니다. 경험중심의 각 교과는 어떤분계 장면에 봉착하여 두절된 학습활동의 지속성을 되찾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 할 때 요청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사실이나 지식 정보등 모든 것이 다같이 활동계획이 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역동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교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받아 드려지고 있는 견해는 교과가 지식의 地位를 이미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교과는 생애 실험에서 얻어진 사회적 경험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발견한 진리이며, 또는 진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진리는 교육과정상의 이론적 형태로 진술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어떤

즉각적인 장면에서 필요로 했을때 그 이론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학교의 기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계획된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충분한 범위를 순서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교수가 판단할 수 있는 조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 사실 또는 이론과 같은 “아이디어”의 진리는 교육 실재에 있어서 불 명료하거나 혼돈되었을때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했을때 비로소 진심이 되고' 또는 허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문제 해결이 되어 학습보다 활동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진리일 것이며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은 허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라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작용하거나 일어난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글자 그대로 확증하는 것이며 결코 완전하거나 불변이거나 영원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가르친다는 것과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교수 또는 가르친다는 것은 협조적인 예술입니다. 교수원리는 학습의 특성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수법의 기본 모형은 주입식 강의식 그리고 변증식 또는 토론식의 3개 종류로 大分할 수 있습니다. 변증적 교수법은 발견 학습과 일치 합니다. 배우의 종류로서 발견과 학습지도(Discovery and Instruction)의 근본차이는, 발견은 교사없이 배운 것이며, 학습보도는 교사의 도움으로 배우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교사는 다만 배우에 협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우에 있어 결코 기본 원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이란 각가지 응답에 대한 조직입니다. 학습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응답에 대한 조직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20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철학자였던 Dewey가 말하기를, 재정리 하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그 지식을 가르쳐 주기전에 그 지식이 이미 있었던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가르친다는 것은 진보 또는 진전적이라고 불리워지고,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 실질적 응답을 재 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도우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던 학생의 실제 응답 또는 반응의 재 정리를 위해서 교수는 어떻게 무

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의문이 날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가설적 지식이 지식이라면 그 지식에 대한 기호를 사용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의 사물에 대한 지식의 의미를 학생은 그 五官을 통해서, 기호로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교수의 기본 역할은 이 기호를 목적에 따라 적용시켜야 하며 현재 中心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저자들도 책에서 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목적물과 時制를 적용시킬 수 없는 활자로 동결이 되어 있으니 까요.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수가 논리적 도구인 기호를 통해서 학생 배움에 원인이 되어야 하는 점과 학생 자신이 배움에 대한 충분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배워 줄 수 없으며 그 사람 자신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습보도 장면에서 학생의 직접 개입과 참여는 배움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배움이라 하는 것은 학생과 환경을 포함한 모든 세력 또는 힘의 전범위에 대한 재 구성이기 때문에, 배움의 결과로서 인간성의 변화로 이끌 것이며, 따라서 개성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능의 역할은 실제적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가설적 해결안을 형성하고 시험하는데 있어 도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은 인간이 처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탁월한 적응을 촉진시킨다고 한다면 학교는 변천되어 가는 세계에서 인간적응의 도구로서 지능을 정련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의 知的과제는 학생에게 계속적 문제해결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학생을 보도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해 주는 것은 선생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즉 학생은 달라진 환경과 같이 상호작용하여 부닥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목적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수는 교육과정(진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다변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변적

자원 활용을 위해서 자원 환경을 학교내의 실습이나 도서관 이용같은 학교생활 외에 가정, 교회, 매스콤, 산업장, 학교밖의 생활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가 계획하여 설계된 학습기계를 통해서 는 자기 마음대로 있는 자료를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 기술을 배우는데 한정되고 학생의 새로운 심리적 환경 또는 심리적 범위로 변경시키는데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 교육을 하는 교수는 학생을 위해서 문제를 제시하며, 학생능력에 알맞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해결 습관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 학생자신의 적절한 학습경험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식 수준에서의 학습보도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무엇을 생각” 하는 것 보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방법을 알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문제에 대한 사고와 그 해결을 위한 필요한 단계를 이행해 나가는 것 두가지에 다 관여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 수준에서의 학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관되는 자료수집 경험등 사고 이외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호학생으로서 초급학년에서는 간호문제 해결에 선행되는 필요한 상태로서 각교과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며, 나중에 문제 해결을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공부에 치중해야 될 것입니다.

Ⅲ. 요약

이상의 다섯가지면 즉 사회와 교육, 경제면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수와 학습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간호교육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육의 사회성과 학생의 개성이 우리 간호교육에 반영되고 있는지? 경제적 측면이 고려되고 있는지? 교육목적은 개인요구와 사회요구 어느쪽에 치중되고 있는지? 교육과정은 진출된 교육목적 달성수단으로 계획 실시 되고 있는지? 어떠한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학습보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동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의 實用主義的 실험주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철학적으로 본 간호교육이라는 주지를 감히 대신 합니다.